

100만 촛불대행진 앞두고 시민들 총집결중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6.10 16:32

고 이병렬 조합원 빈소 성시...경찰, 세종로 사거리 대형 컨테이너 12개 2층 벽 쌓는 진풍경...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우익세력들 집회·미국 소시지 시식하며 진보세력 비난하기도

[사진4]

6.10항쟁 21주년을 맞는 6월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을 앞두고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촛불시민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 100만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6.10항쟁을 기념하며 오늘 사상최대 규모 전국 동시다발로 성사될 촛불문화제를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기다리는 모습이다.

오후 3시30분 현재 서울광장에는 예비군복을 입은 청년들과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엄마들, 생기발랄한 대학생들, 넥타이를 맨 사무직 노동자들, 노인들이 대거 집결하고 있다.

가족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그들 손에는 저마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손 피켓과 유인물이 들려 있다. 시민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배포한 손 피켓으로 그들을 만들어 따라온 햇볕을 피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된 횡단보도에 푸른 등이 켜질 때마다 시청 앞으로 모여드는 시민들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사진1]

9일 사망한 고 이병렬 조합원 빈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고인 명복을 빌고 있다. 빈소에는 '방관만 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고인 유서에 담겼던 글귀와 이병렬 조합원 영정이 대형으로 내걸렸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 화환도 자리했다. 시민들은 이 조합원 향의분신과정과 유훈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빈소를 지키는 관계자에게 뭔가 묻기도 하는 모습이다.

한편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 한켠에서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법 질서 수호·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이들은 "2백만 재미교포와 10만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있는 소시지 시식회를 한다"며 기자들 취재보도를 당부하고 있다. 뉴라이트 집회 참가자들은 "수입고기를 왜 못먹어? 없어서 못먹지!", "끓어봐야 알아, 끓어봐야"하며 뉴라이트 회원들이 후라이팬에 구워 내놓는 소시지를 시식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오늘 소시지 시식회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통계적으로 30개월 이상 소가 18%나 소비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50% 이상 소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미국인들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려 한다는 KBS MBC 잘못된 보도 때문에 우리 국민들 불안이 증폭됐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뉴라이트 집회 연설을 통해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이 조그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침소봉대하고 '물러가라'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촛불집회를 조종하는 핵심단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들은 효순·미선이문제, 평택미군기지 반대,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주장, FTA 비준반대를 주장해온 전교조, 진보연대, 범민련, 참여연대, 실천연대, 민노총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3]뉴라이트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시민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시비를 걸어 곳곳에서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뉴라이트 집회 참가자들은 "이 000들아, 과거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싸웠는데~", "이런 나라 망해먹을 놈들 같으니라구"하며 촛불시민들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 노인으로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으로 보인다. 경찰들이 촛불시민들과 뉴라이트 집회 현장을 가로막고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모습이다.

오후 3시30분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는 민주노총 시설연맹 조합원 수백명이 집결해 '미친소 수입 반대, 이명박 정권 규탄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0일 새벽 4시경부터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바로 앞쪽에 대형 컨테이너 12개나 가져다가 2층으로 쌓고 용접을 해대며 도로를 차단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모레를 채웠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주변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컨테이너 벽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 사진조차 찍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세종로 사거리를 막아선 대형 컨테이너 벽에는 성난 민심과 국민 비난여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두려움이, 공포심이 서려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사진5]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